

미주 시조 선집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시조론

박미영*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주 시조시인협회 회원들이 발간한 일련의 미주시조선집 『사막의 달』(1989), 『사막의 만들레』(1994), 『사막의 별』(1996)을 중심으로 미주시조시인들의 시조 인식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연구 대상은 시인들이 작품을 발표하면서 부기한 <시작노트>와 권말에 수록한 시조에 대한 논의이다.

미국에서의 시조창작활동은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고 한국문학에서 다른 문학 갈래보다 한국고유성을 지닌 갈래로 인식되어 외국인들도 영어로 시조를 창작하며 인터넷상의 동호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민지에서 형성된 미주시조시인들의 시조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시조의 본질과 효용에 관한 인식으로 본질은 전통적인 정의방식에 따르고 있으면서 효용에서는 독자를 향한 효용성보다는 자기 표현을 통한 정화적인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 시조 갈래에 대한 인식은 형식성으로 귀결된다. 1행 4음보의 3행 형식이라는 정형성이 시조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만큼 시조의 형식성에 의미를 두면서 표현되는 기사형식은 다양하다. 단형시조의 세 줄 기사 형식도 중요하지만 단형시조의 내재율을 살린 연시조 형식, 사설시조, 이미지스트의 수법 등 시험적인 기사방식을 통해 개성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시조 창작 행위의 의미를 통해 민족문학론을 전개한다. 시조 창작이 애국심의 표현인 동시에 본국인 한국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한다. 그리고 시조를 창작하여 현지에 보여줌으로써 이민지의 현지인에게 민족문화를 전달하는 전파자로서, 이민지에서 다른 민족들과 경쟁하면서 민족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다.

* 백석대학교 교수

결론적으로 시조론의 전개에 있어서 우리 문학 갈래 내에서 시와 가의 내포적, 외연적 의미로서의 시조를 가치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문학 속에서 다른 나라의 정형시가와의 경쟁하는 가운데 시조의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제 3의 디아스포라 시조론이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핵심어 : 시조, 미주시조, 해외시조, 시조론, 디아스포라, 영어시조, 사막의 달, 사막의 민들레, 사막의 별, 코리아-아메리칸

1. 서론

본 연구는 미주 시조시인협회 회원들이 1989년부터 1996년 사이에 세 차례 발간한 일련의 미주시조선집 『사막의 달』, 『사막의 민들레』, 『사막의 별』에¹⁾ 나타난 시조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여 미국에서 시조 창작 활동의 의미와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국문학 연구에 있어서 이미 이른 시기에 망명 혹은 이주한 교포들을 민족어 공동체로 인정하고 이들이 민족어로 창작한 문학을 한국문학의 범주에 고려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²⁾ 특히 해외 이주 100년이 되는 즈음인 2000년에는 해외동포재단에서 개최한 한민족문화 포럼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 국문학이 해외 교포문학까지도 포용할 것”이라고³⁾ 하고 나아가 한국문학의 범주에 모국어로 된 것이 아닌 작품과 같이 “창작의 강역이나 창작의 주체, 사용된 언어 등에 결손 부분이 있더라도 재외 한국문학을 우리 문학의

1) SIJO Society of America 미주시조연구회, 『사막의 달』(1989)백상시선 4, 白象, 1989. : SIJO Society of America, 『사막의 민들레』, 도서출판 나라, 1994. : SIJO Society of America 미주시조시인협회, 『사막의 별』, 가람출판사, 1996.

2) 조동일, 「국문학의 개념과 범위」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21쪽.

3) 김성곤, 「다문화시대의 한국문학을 위한 일곱가지 제안」, 재외동포재단 『제3회 한민족문화공동체대회·한민족문학포럼 자료집』, 해외동포재단, 2003. 186쪽.

한 특수한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자”고⁴⁾ 논의를 확대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1990년대 들면서 1945년 전후의 망명지 문학으로서가 아니라 세계 각처에 이주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작품활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⁵⁾ 더욱이 해외로 이주한 1세대의 동포뿐만 아니라 그 후의 세대들도 포함하는 재외국민들이 이룩한 문학적 성과를 한국문학의 범주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문학의 영역을 확장하지는 전제하에 후기식민주의⁶⁾ 및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⁷⁾

이런 가운데서 시조는 우리 민족의 문학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미국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⁸⁾ 이민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가 미흡하다. 1985년 시조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시작한 미주시조시인협회는 국내문단과 교류하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

4) 김종희, 『문화통합의 시대와 문학』, 문학수첩, 2004, 185쪽.

5) 중요연구업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윤명구, 「재미 한인 문학활동의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소논문집』19,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2. : 김용직, 「문학을 통해본 재외동포들의 의식상향 고찰」 『인문논총』 29, 서울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93. : 홍기삼, 「재외 한국인 문학 개관」 『동악어문론집』 30, 동국대학교, 1995. : 윤석산, 「재미 교포 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지역정서」 『현대시학』 321, 현대시학사, 1995년 12월호. : 표언복, 「미주유이민문학연구」 『목원어문학』 15, 목원대학교, 1997. : 서종택, 「재외 한인 작가와 민족의 이중적 지위」 『한국학연구』10/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8.

6) 에드워드 W.사이드, Culture and Imperialism을 김성곤·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 (창, 2000)과 박홍규 역, 『문화와 제국주의』(문예출판사, 2005) 등으로 번역되는 등 미국 내에서의 이민자들에 대한 담론의 틀을 사이드의 담론에 의거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7) 이연숙, 「디아스포라와 국문학」 『민족문학사연구』19, 민족문학사학회, 2000 : 송명희, 「재미동포문학과 민족 정체성-미국 동부지역 워싱턴 문단을 중심으로」 『비교문학』32, 한국비교문학회, 2004.

8) 박미영, 「〈신한민보〉 소재 시가의 이민문학적 성격」 『진리논단』7, 천안대, 2002a. : 박미영, 「재미작가 홍언(洪言:1880~1951)의 시조 형식 모색과정과 선택」 『시조학논총』18, 한국시조학회, 2002b.

조시인들의 작품 선집인 『사막의 달』(1989), 『사막의 민들레』(1994), 『사막의 별』(1996)을 간행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해외시조』라는 시조전문 잡지를 창간(발행하고)⁹⁾ 바로 『시조월드』를 발행하여 미주시조시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여러 이민지의 시조 작품을 널리 알리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작품들의 가치를 규명하는 연구로는 시조선집에 실린 평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우걸은 「고향찾기의 여러 얼굴」에서 이 세 권의 시조선집에 나타난 시조를 사랑, 동심, 기행, 실험의 시로 고찰하고 해외에서도 시조를 쓰는 것은 애국하는 일이라고 시인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하였다.¹⁰⁾ 그리고 시조 선집의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로 「미주 시조 선집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작가 의식」이 있다. 시조 선집에 나타난 작품들은 선집의 제목에서부터 이민자의 의식이 드러나며, 영원한 한국인으로서 조국에의 강한 유대감을 표현하면서도 미국에서의 적응이라는 현지와의 제휴의식을 담고 있어, 코리안-아메리칸, 디아스포라의 전형적인 작가 의식의 표출임을 밝혔다.¹¹⁾

이와 같이 미주 시조 시인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주제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작품세계를 규명하는 작업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미주 시조 시인들이 엮은 시조 선집 세 권을 중심으로 이들의 시조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다. 연구 대상은 이국 만리 떠나면 미국 땅에서 시조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절실한 창작동기를 밝힌 시인들의 <시작노트>이다. 특히 두 번째 시조선집인

9) 미주시조인협회·미주시조학회, 『해외시조』창간호, 1999.

10) 박시교, 「해설-틀과 내용의 차이」:미주시조연구회, 『사막의 달』, 179-191쪽. 서별, 「해설-移民地에 뿌리 내린 시조의 숨소리들」, 『사막의 민들레』, 163-167쪽. 김호길, 「해설-미주대륙에 심은 시조의 튼튼한 뿌리」, 『사막의 별』, 164-6쪽. 이우걸, 「고향찾기의 여러 얼굴 -『사막의 별』·『사막의 달』·『사막의 민들레』를 읽는 마음의 평문」, 『해외시조』창간호, 279쪽.

11) 박미영, 「미주시조선집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작가의식」, 『한국시가연구』25, 한국시가학회, 2008.

『사막의 민들레』에 집중적으로 수록된 〈시작노트〉는 비록 통일성이 유지되어 완결되고 완성된 주장은 아니다. 각 개인마다 시조에 대한 다른 관심을 노정하고 있어 논의의 편차가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이민이라는 상황의 공통기반에서 일정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를 대상으로 한국이 아닌 곳에서 시조를 선택하여 창작하는 시인들의 시조에 대한 인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주지역에서 시조 시인들이 어떻게 시조창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를 미주 이주 초기에 서부터 인터넷이 보편화되는 현재까지를 간략하게 검토한다. 현재 미국의 인터넷 〈Yahoo!야후〉의 하위 동호회 그룹에서 외국인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영어로 시조를 창작하여 발표하고 있는 상황도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어시조의 창작활동을 의식하기도 하는 가운데 이뤄진 시인들의 발언과 〈시작노트〉를 고찰하여 미주 시조시인의 시조인식을 살펴 미국에서의 시조창작의 의의를 규명하며 앞으로 시조론의 전개를 전망하고자 한다.

2. 미주 지역에서의 시조 창작활동의 전개과정

미국 이민지에서 우리 고유의 시조를 제일 먼저 알린 것은 일제 강점기 미국에서 발행되었던 『신한민보』라 할 수 있다. 『신한민보』는 원래 1905년 11월 20일에 창간된 『공립신보(共立新報)』를 전신으로 한다. 『공립신보』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단체의 각종 발행 신문들을 통합하고, 1909년 2월 10일에 국문으로는 『新韓民報』라고 제자하고, 영문명으로는 『The New Korea Times』라고 개칭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하였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료 가운데 『신한민보』에서의 첫 시가 작품은 1906년 4월 14일자에 실린 〈공립협회 창립기념 노리〉¹²⁾ 『독립신문』 조재의 애국가사류의 형식이다. 곧 이어 1906년 6월 30일자에 실린 어느 평양 여학도의

노래가 실린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대 지진을 당한 우리 동포들에게 본국에서 보내온 위문 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미 본국 신문 『대한매일신보』¹²⁾ 1906년 6월 5일자에 게재되었던 가사형식의 시가이다. 이를 비롯하여 초기 몇 년간 게재되는 작품들은 거의 개화가사 형식이며 본국의 신문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대한자강회월보』¹³⁾ 등에 실린 것을 소개한 것이다.

시조는 1908년 8월 26일자 4면에 〈諧歌〉라는 난에 고시조 10수를 소개함으로써¹³⁾ 미국에 첫 발을 디딘 것이다. 그 1년 뒤인 1909년 8월 25일자에 창작시조가 발표된다. 1면 하단에 〈短歌〉라는 난에 소개된 것으로 작자는 盤龍山少年이다. 기사형식은 줄글의 형태로 장구분이 없으며 종장의 마지막 음보가 생략되어 있어 시조창을 의식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전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오추마 급히 모라 오강변 당도하니 돌아 갈길 어디던가 가석하다 더 장사야
절망병 티료하고 지도강동 흐었더면 텃하사를

이렇게 시작된 시조의 창작과 소개는 『신한민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이자 1900년대 전반기 『신한민보』를 중심으로 문학활동을 한 중심인물인 홍언(洪焉: 1880~1951)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¹⁴⁾ 홍언이 남긴 시조작품은 약 300여 편으로 양으로 보나 그 시기로 보나 재미한인 시조시인으로서의 시조 창작과 발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다려 조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1965년 이민법 시행이후 가족초청 등에 의한 이민이 대거 이뤄지는 1970년 이후의 이민자들에 의해서이다.

12) 이 시기는 1905년 11월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교포단체인 공립협회(共立協會)의 기관지로 창간된 『공립신보』 시기이다.

13) 성삼문 2 수, 박태보, 리순신, 리제신, 김상헌, 김유, 홍섭, 리완, 유승의 시조이다.

14) 박미영, 「재미작가 홍언의 시조 형식 모색과정과 선택」.

이들이 어느 정도 한인사회를 형성하게 되면서 조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1962년 공식 이민이 이루어진 약 10년 후인 1973년에 『지평선』이라는 동인지를 필두로 집단적인 문학활동이 전개되었다. 1980년이 지나면서 미국의 각 지역에서 여러 단체가 결성되고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시조는 종합지나 시에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1985년 시조연구회라는 동호회 모임형식으로 시작하였다. 시조연구회의 중심인물인 김호길 시인 등이 시조를 중심으로 세계도처의 작가들을 연합하는 1999년 세계한민족 작가연합을 결성하고 조오현 시인을 중심으로 한 2003년 10월 세계 시조사랑협회 조직에 합류하였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⁵⁾

1985년 김호길을 주축으로 LA에서 <시조연구회>라는 이름으로 그룹 형식의 모임 시작함.

1989년 미주 최초의 시조 앤솔로지 『사막의 달』을 발간함.

10월 시조 문학의 밤을 열고 김호길 시인이 ‘시조의 이해’, 샘버그 교수가 ‘시조를 보는 방법’ 강연함.

1991년 2월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미주 시조 시인 작품 연재함.

1994년 미주 시조 앤솔로지 『사막의 민들레』을 발간함.

1995년 <시조연구회>가 <미주시조시인협회>로 새로 발족함. 회장 김호길 부회장 : 이정강·변완수·한혜영, 이사장 : 반병섭.

1995년 10월 본국에서 이근배 시인을 초청하여 <나는 왜 시조를 쓰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는 등 본국 시인 초청강연을 계속함.

1996년 7월 이후 기영주·최경희 시인의 『시조문학』추천, 다음 해 박경호 시인의 『시조문학』추천을 비롯하여 이인숙, 조옥동, 윤길하 등등이 본국의 『현대시조』, 『시조문학』, 『열린시조』 등에 신인상을 받거나 추

15) 박미영, 「미주시조선집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작가의식」을 보완하여 미주시조시인 협회(1999)의 「1985~1999 미주 시조시인협회 연혁」, 『해외시조』1과 김종희의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및 세계 한민족작가연합 사이트의 연혁 등으로 작성하였다.

친을 받아 활동.

1996년 8월 영문시조전문계간지 『SIJO WEST』에 고원교수의 영역으로 고원·김호길·김다솜 시인의 영문시조 발표하여 시조를 미국 현지인들에게 소개함.

1996년 12월 미주 시조시인협회 세 번째 앤솔로지 『사막의 별』을 발간함.

1997년 3월 고 추강 황희영 박사를 기리는 제 1 회 <해외 한민족 문학상> 대상을 김호길 시인, 신인상을 한혜영 시인이 수상함.

9월 『시조마당』 제1호 간행함.

1997년 7월 미주의 시조 발전을 위해 미주 시조시인협회 임원을 대폭 개편하고 뉴욕, 플로리다, 샌프란시스코, 뉴저지, 오하이오 등에 부회장을 둬.

1998년 김호길 시인의 현대시조문학상 본상수상을 비롯하여 이인숙 시인 ‘현대시조’ 신인상에 당선, 조옥동 시인이 ‘현대시조’ 신인상과 ‘순수문학’에 시 당선, 윤길하 시인이 ‘현대시조’ 신인상에 당선하는 쾌거를 이룸.

1999년 6월 『해외시조』 창간호를 발행함.

1999년 9월 세계한민족작가연합을 창립함.

1999년 10월 시조전문지 『시조월드』를 창간함.

2000년 12월 L.A. 한국문화원에서 <2000년 민족시조축제>개최. 『시조월드』: www. sijoworld.com 웹사이트 개설 및 『해외시조』 2호 발간 등을 기념함. 『시조월드』 자이트에 <영문시조>란도 마련하여 영역을 한 시조를 올릴 수 있도록 함.

2003년 10월 세계 시조사랑협회를 조직함.(회장 : 조오현)

한국에 거점을 두고 지부가 미국과 캐나다, 연변으로 설치됨.

로스앤젤레스 중앙일보 강당에서 ‘시조월드 축제 및 시조월드 문학상 시상식’ 개최.

2008년 4월 『시조월드』 제16호를 발행함.¹⁶⁾

16) 현재 『시조월드』의 주소는 : http://www.sijoworld.com/Frame_main.htm 이다. 김호길의 창작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홈페이지 활용이 활발한 상태는 아니며, 다시 세계 한민

미주시조시인협회의 회원들은 미주 내에서 활동이 활발할 뿐 아니라 본국의 시조문단에 정식으로 등단하여 활동하고 시조집도 출간하였다. 이후 시조가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민족문학을 포괄하고 이민지의 민족 작가들의 교류를 촉진하며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단체인 <세계 한민족작가연합>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범세계적 민족 문학의 중심에 시조가 자리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미국에서 영어로 시조를 창작하는 활동이 전개되었다. 우리 나라 시조가 처음 영역되어 소개된 것은 1931년 강용홀의 소설 <초당>에서이다.¹⁷⁾ 여기에는 22편이라는 많은 고시조가 영역되어 삽입되어 있어 소설을 통해 우리 고시조를 미국에 소개한 것이다.¹⁸⁾ 1971년 R. Rutt가 영역 고시조집 『The Bamboo grove』를 미국에서 발간하여¹⁹⁾ 영어권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그 이후 우리나라 시조가 미국에 크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2년 5월 플로리다에서 발간되는 『How To Write And Publish Poetry』에 그 편집자인 래리 그로스(Larry Gross)가 우리나라 시조를 소개하면서부터라고 한다.²⁰⁾ 이 래리 그로스 교수는 영문 시조 전문계간지 『SIJO WEST』를 발간하였다.²¹⁾ 그런가 하면 1995년 엘리자벳 잭케스(Elizabeth St. Jacq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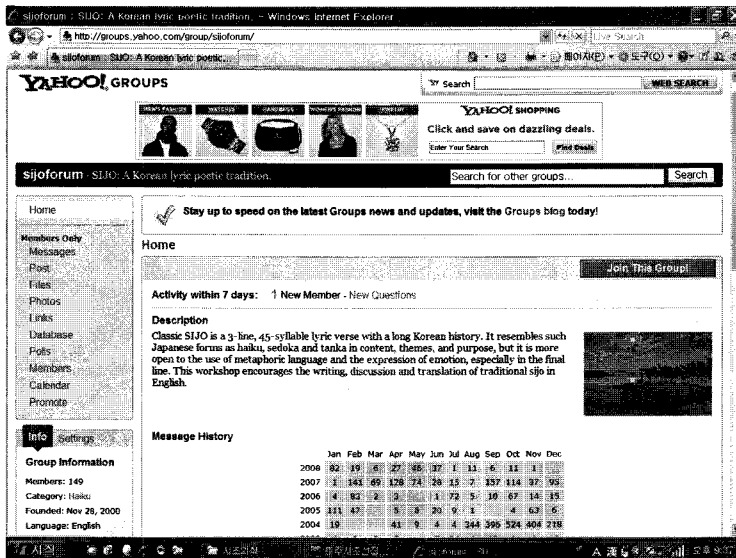
족작가연합으로 통합되고 있다.

- 17) Younghill Kang(1931), 『The Grass Roof』, Charies Scribner's : New York, London.
- 18) 홍경표, 「강용홀의 『초당』과 『행복의 숲』에 인용된 한국 <고시조>-특히 영어번역과 관련하여」 『한국말글학』 20, 한국말글학회, 2003.
- 19) R. Rutt ed. & trans., 『The Bamboo grove: An introduction to sij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 20) 오두방정의 꿈꾸는 풍경, 「주먹시 이론 4. 서양에서의 우리나라 시조(時調)」, cafe.chosun.com/dreamview (http://cafe.chosun.com/club.menu.bbs.read.screen?page_num=2&p_club_id=dreamview&p_menu_id=18&message_id=405199)
- 21) 앞의 미주시조시인협회의 활동에서 보면 1996년에는 Gross 교수가 『SIJO WEST』를 발간하는 데에 미주시조시인협회가 참여하기도 한다.

시인의 『Around the Tree of Light』이란 영시조집이 발간되기도 하였다.²²⁾

1996년 이후에도 Larry Gross 교수는 영문 시조 전문계간지 『SIJO WEST』를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조를 미국에 알리며 인터넷상에서 그룹, 세미나를 운영하면서 시조를 영역하여 소개하고 영어로 창작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역된 시조가 소개되며 시조를 영어로 창작하여 작품을 소개하고 토론하기도 하는 인터넷 공간이 Yahoo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한 사이트의 이름과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SIJO WEST by Larry Gross : SIJOFORUM · SIJO: A Korean lyric poetic tradition. <http://groups.yahoo.com/group/sijoforum/>



야후의 그룹이며 그룹 소개에 보면 “Category: Haiku / Founded: Nov

22) Elizabeth St Jacques, 『Around The Tree of Light (sijo)』, Maplebud Press, 1995.

28, 2000”라 되어 있다. 원래 Larry Gross 교수가 웹 사이트에 <SIJO WEST>로 문을 열었는데 <Poetry in the WORD shop>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고, 야후에서는 2000년 9월 28일에 토론방 <SIJO FORUM: SIJO: A Korean lyric poetic tradition>으로 개설했다고 한다. 가입한 회원들의 국적을 모두 확인할 수 없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원이 148명이 되며²³⁾ 영어로 시조를 창작하여 올리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포토 앨범 난에 관련된 그림을 바탕으로 자작 시조를 적어 올려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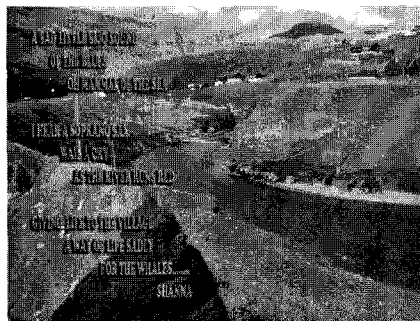
sijo fr the whales n picture By: shannabaldwin

File Name: n/a Posted: Nov 9, 2004

A Sad Little sijo sound
of the blues
Oh mammal of the sea

I hear a sopranosax
with a cry
as the river runs red

Giving life of the village
a way of life sadly
for the whales……
Shanna



23) 본인이 가입한 2008년 5월 25일에는 회원이 138명이었고, 11월 27일 현재 148명으로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포토앨범>의 난에 자작 시조와 붉은 강이 흐르는 사진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 작자 Shanna Baldwin의 프로필은 하와이 사는 여성이라 하고 나이가 꽤 들어보이는 사진과 함께 흥미/관심은 “Singing, dancing, writting, playing music, winemaking, camping” 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이기도 하다.

또 Massage 난에 평론을 올리기도 하고 자작 시조를 올리기도 한다. <sijo string>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 8월 18일에 kitsune miko라는 필명을 쓰는 회원이 다음의 글과 시조를 3편 게재한다. 자세한 프로필은 없지만 회원동정에 간략하게 소개된 것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남쪽의 Palo Alto에 사는 65세 여성 이름이 Sandy Vrooman으로 추정된다.

I have hung an art show of my works in a local gallery. Having done performance art as well as static art, I prefer the performance. You either get applause or you don't, there is closure. The string below is about hanging a show. I've put down my estimated line counts and don't know if they are accurate. I did the count on the fingers while reciting out loud method. Comments appreciated.

San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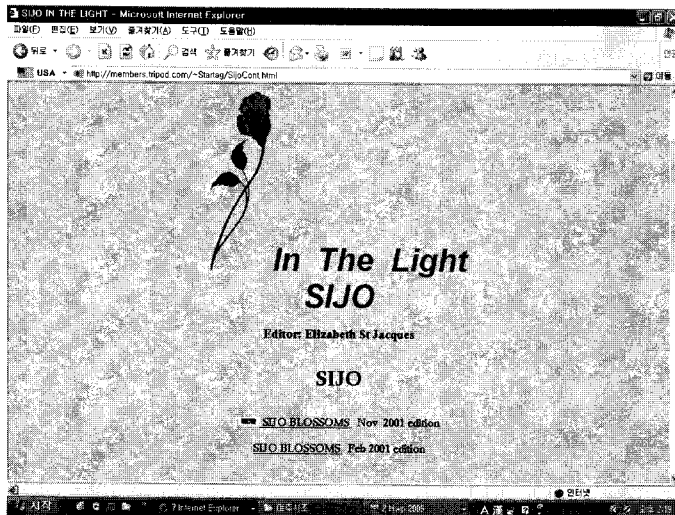
hanging an array of eye-fuls of my soul upon a wall 14
remembering to cut the umbilical cords that bind me 16
let my work take wing flying free of containment 13

위 글에 의하면 시조를 설명하는 내용은 본인이 작품과 그림을 함께 제작하여 전시회를 하였고 그 중 하나가 다음에 인용하고 있는 시조작품이라는 것이다. 창작시조 뒤의 숫자도 본인 표시한 것으로 음절수를 나타낸 것으로 Sandy라는 작자는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음절수가 맞는지 가장 염려

를 하고 있다. 이 음절수는 모두 43개로 우리나라 45자의 내외 범위에 들어간다. 그리고 자기 작품에 대한 평가를 바란다고 하고 있다. 이 작가는 최근 까지도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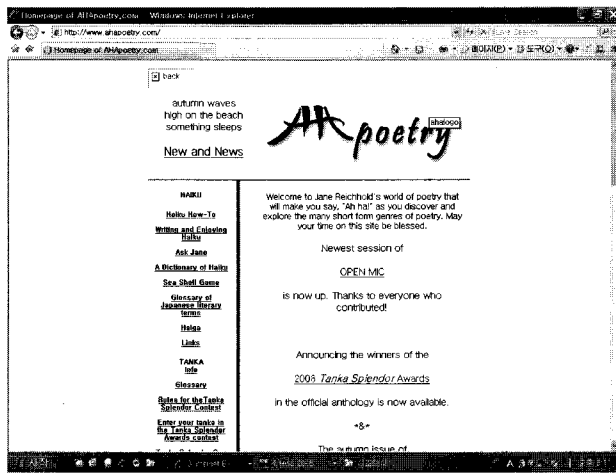
(2) SIJO BLOSSOMS by Elizabeth St. Jacques

〈Poetry in the Light〉의 하위분야에 〈Sijo in the light〉라 하고 그 아래 〈SIJO BLOSSOMS〉을 시기별로 탑재하였다. <http://members.tripod.com/~Startag/SijoCont.html>



(3) Jane Reichhold의 AHA POETRY

<http://www.ahapoetry.com>에서는 하이쿠 등과 함께 시조항목을 만들고 〈Sijo Forum〉의 Larry Gross 글을 그대로 옮겨 놓아 시조에 대한 소개는 물론 창작의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4) Debra Woolard Bender의 PAPER LANTERNS/ Neca Stoller의 HAIKU CUPBOARD/ an'ya'의 DARK MOON POETRY/ Ray Rasmussen의 HAIKU DREAMS 등등에서 하이쿠의 하위분야로 설정되어 있다.

(5) 현재 미국에서 연중행사로 치루는 시 컨테스트 중 시조를 한 분야로 채택하는 곳은 <THE ARIZONA STATE POETRY SOCIETY>와²⁴⁾ <FLORIDA STATE POETS ASSOCIATION>²⁵⁾, 그리고 <NORTH CAROLINA HAIKU SOCIETY>²⁶⁾ 등이 있어²⁷⁾ 외국인들의 시조 영어 창작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다.

24) <http://www.azpoetry.org/>

25) <http://thewordshop.tripod.com/fspa/index.html>

26) <http://www.nc-haiku.org/>

27) 오두방정의 꿈꾸는 풍경, 「주먹시 이론 4. 서양에서의 우리나라 시조(時調)」

이와 같이 미국 이민 초기 시조는 미국에 있는 한국인을 독자로 하는 『신한 민보』신문에서 시작하여 미국인과 다양한 외국인들이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어는 물론 영어 작품이 다양한 방법과 매체로 소개되고 창작되고 있다. 또한 이 영어 시조에 대한 창작활동의 전개가 모두 미주시조시인들이 선집을 내는 시기에 이뤄지는 일들이었으며, 이들의 활동을 의식하고 세 번째 선집인 『사막의 민들레』의 권말에 고원 시인의 〈미주대륙에 심은 시조의 튼튼한 뿌리〉에서 언급하여 논의하고 있다.²⁸⁾ 이러한 시기 발간된 일련의 미주 시조선집은 미주 시조시인들의 성장과 더불어 공동의 관심 아래 선택된 작품으로 볼 수 있어 미주 시조 창작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를 통해 언급한 시조에 대한 발언은, 이들이 시조에 대한 인식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국내와는 변별되는 새로운 시조론의 전개를 기대해 볼 수 있게 한다.

3. 시조 갈래의 선택과 창작의 의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조는 이민 초기에서부터 미국에 뿌리 내려 외국인이 영어로 창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는 미주시조시인들의 시조선집에 나타난 〈시작노트〉를 통해 시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8) 시조가 바로 그렇다. 북미주의 시조연구가들에 의해 첫 영어권 시조집이 나왔고 첫 영문시조계간지가 나와 일반독자층에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다. 캐나다의 엘리자벳 잭케스시인의 『Around the Tree of Light』이란 시조집이 1995년 처음 Maple Press사에서 나왔다. 『SIJO WEST』라는 계간지는 플로리다에서 금년(1996) 봄·여름호 벌써 두 권째 발간됐다. 엘리자벳여사는 필자에게 보낸 편지에 “처음에는 하이쿠에 매료되었다가 우연히 김재현 교수, 김운송시인의 시조에 대한 소개의 글을 읽고 차츰 연구를 거듭 이제는 주로 시조를 짓게 됐다. 이러한 훌륭한 시의 장르와 보배같은 고시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시집 참고도서목록에는 무려 12권의 영문 시조 소개 책자가 수록되어 있다. 김호길(1996), 〈미주대륙에 심은 시조의 튼튼한 뿌리〉(3-164~165쪽).

특히 시선집 두 번째 권인 『사막의 민들레』에는 각 개별 시인의 작품 끝에 모두 〈시작노트〉를 부기하고 있어 이를 살펴 보기에 좋은 자료가 된다. 세 번째 권인 『사막의 별』에도 일부 〈시작노트〉와 권말에 시조를 창작하는 동기에 대한 글이 있어 함께 살펴 보고자 한다.

작가들이 자유롭게 부기한 〈시작노트〉의 산발적인 발언들은 통해 크게 몇 가지 내용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시조를 창작하게 된 동기로는 문학작품을, 시조를 창작하지 않은 수 없는 문학 본질적인 성격이나 효용성을 먼저 꼽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시조를 선택하는 가장 큰 요소로서의 형식성은 시조 정형성의 가치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이 가장 잘 드러나며, 시조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민족문학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민지에서 바라보는 본국과의 관련과, 이민지에서 다른 민족과의 비교 속에서 시조를 인식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3.1. 시조의 본질과 효용적 가치

〈시작노트〉는 그야말로 시인이 시를 쓰고 그 작품에 대한 논의한 것으로 시인의 구체적인 창작 동기가 드러나 있다. 자신의 작품을 창작하게 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동기를 말함으로 해서 문학이, 시조의 본질이 무엇이며, 작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시조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먼저 시조 창작 동기에 대한 발언을 통해 문학, 시조의 본질에 대한 언급을 살펴 보자.

- ① 시조 한수 쓰지않고 지나가기에는 꽃 한포기가 너무 아름답다. 한 10년 시조를 쓰고 그만두기에는 자연이 너무 신비롭다. 시조와 친하다 보니 인생은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 고원, 「시작노트-시조처럼 살고 싶어」(2-15)²⁹⁾

- ②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마다 그 풍경에 압도되어 제대로 사물을 형상화해 내는 시인이 될수 없음이 안타깝다. 하고 싶은 말, 들려줄 얘기는 너무 많은데 언어구사 능력이 역부족이다. 어데라도 가고 싶고 또 노래하고 싶은 나의 역마살이 사라지지 않는한 계속 쓸 것이다. 박지아, <시작노트> (2-59)
- ③ 시를 “쓴다”고 보통들 말하지만, 시는 쓴다든지 짓는게 아닌것 같다. 시가 우러나고, 이루어지고, 모습이 완전히 갖추어질때 까지의 과정이 바로 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특히 시조의 경우엔 쓴다거나 짓는다는 말이 더 맞지 않을성 싶다. 대상으로 삼은 사물의 정수를 파악하고 뽑아내는 일이야말로 시조의 생명이 아닐까. 그러자니 압축하고 또 압축하는 중에 표현의 감도, 강도, 심도를 최대한도로 끌어 올려보자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김다솜, <시작노트>(2-26)

①, ②에 의하면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시조를 쓰지 않을 수 없다,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외부적 자극에 의해 시가 나온다는 시의 발출구도에 관한 본질론적인 발언이다. 즉 시는 자연을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시란 자연, 즉 物에 촉발되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을 말로 표현한 것이다.

시조의 본질을 논함에 있어 李滉이 <陶山十二曲跋>에서 “閒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벼슬길에 있지 아니하고 병을 다스리는 사이에 무릇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매번 시로 나타내었다.”고³⁰⁾ 하여 마음에 感하는 것, 外物의 자극에 感하는 마음을 시로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대상에 촉발되는 주체인 마음에 대한 언급은 생략되었지만 外物의 자극에 의해

29) SIJO Society of America 미주시조시인협회, 『사막의 민들레』, 15쪽. 앞으로 인용문이 두 번 째 시선인 『사막의 민들레』의 15쪽이면 (2-15)와 같이 본문에 표기한다. 그리고 인용문의 띄어쓰기, 철자법은 원문 그대로이다.

30) 박미영, 『한국시가론과 시조관』, 97~111쪽.

마음이 움직이고 그 표현이 시가 된다는 과정은 전통시론의 정의 형식을 갖고 있다.

③은 상당히 시에 대해 의미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시가 “쓴다든지 짓는게” 아니라는 말을 述而不作의 용어와 관련지어³¹⁾ 볼 수 있다. ‘쓴다’는 서술한다는 ‘述’로, ‘짓는다’는 창작한다는 뜻으로 ‘作’으로 본다면 문학의 창작태도에 대한 정의는 보류하고 있다. 성인의 말을 그대로 풀이하는 술과 자신의 창의성을 전제로 하는 작의 개념적 대립은 중세적인 사고이다. 여기에서는 술과 작을 대립적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이를 모두 넘어서야 하는 창작태도로 보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시조의 본질을 “대상으로 삼은 사물의 정수를 파악하고 뽑아내는 일”이라 한다. 이 본질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에서 “시가 우러나고, 이루어지고, 모습이 완전히 갖추어질때 까지의 과정”으로 창작태도를 정의한다. 이 과정은 쓴다든지 짓는다든지 하는 소위 작문의 수준이 아니라 문학으로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방법은 압축하고 압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표현의 강도, 감도, 심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이는 洪大容이 〈大東風謠序〉에서 시와 시의 성립과정에 대한 발언 “歌者言其情也 情動於言 言成於文 爲之歌 舍巧拙 忘善惡 依乎自然 發乎天機 歌之善也”³²⁾ 즉 “歌者는 그 情을 말한 것이다. 정이 말에서 움직이고, 말이 글에서 이루어지면 歌라고 한다. 巧拙을 버리고 善惡을 잊고서, 自然에 의거하여 천기에서 발한 것이 歌의 최선이다.”라고 한 것과 대비해 볼 수 있다.

사물의 정수를 파악하고 뽑아내는 주체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지만, 느낀 것이 우러나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그 과정은 홍대용이 말하는 시의 발출구도 형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모습을 갖추에 있어 압축과 표현의

31) 박미영, 위의책. 59~60쪽.

32) 박미영, 위의책. 195~197쪽.

심도, 강도를 통한 형식의 정형성이나 시의 함축성 등의 요소는 자연과 천기에 의거하지는 흥대용의 논의와 달라진다.

위 인용문 ③의 경우에는 사물의 정수라든지 압축이라든지 하는 말로서 내용과 형식에 관한 발언의 단초는 보이지만 이런 것을 검증할 만한 더 이상의 논의를 찾을 수 없다. 워낙 단편적인 글들이며 한 개인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이 아니어서 많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지만 시조의 본질, 혹은 시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우리 선조들이 논의한 문제를 내면화하고 있으며, 심화논의될 수 있는 기초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의의를 삼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작자들이 시조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창작동기를 논의한다. 글 제목이 〈시작노트〉로서 대부분 시인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창작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글들이 창작행위가 작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 발견된다.

④ 엘리엇의 말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때와 같이 강렬한 순간순간들을 추구하는 탐험자가 되어 정화의 연을 띄어 보내고 싶다. 가슴에 열림을 주는 작은 축복의 공간이고 싶다. 이정강, <시작노트>(2-105)

⑤-① 짧은 영어로 하는 직장생활도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졌다. 혈압도 높아지고.

아니 쓸수가 있나?

孤山, 茶山 선생님도 글을 써서 流配生活을 풍요롭게 건디지 않았던가. 옛날 고등학교 시절 성균관 대학교 시조 백일장에서 次下를 한것이 생각났다.

글 쓰는 것-- 짧은 날의 꿈이었다. 전시중, <시작노트>(2-129)

⑤-② 누구와 상의할 것 없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글쓰는 일뿐인 것 같다.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쳐박혀도 할 일이 있네! 내 처지에 時調 쓰는 일이 세상일에 대한 도전이 되지 않을까?

時調를 쓰면 마음이 편해진다. 옛분들도 썼으니까……. 전이중, <시작노트>(3-126)

- ⑥ 한줄의 詩句를 끌어 냈을때의 기쁨은 다른 어느 분야에서 맛볼수 있으리
오. 최달생, <시작노트>(2-144)
- ⑦ 노년에도 무엇인가 매달린다는 것은 젊게 사는 한가지 방법이다. 더구나
우리의 전통시가인 시조를 배우는 기쁨은 그 무엇에 비길 수 있으리요. 한
태수, <시작노트>(2-152)
- ⑧ 문학은 내게 좀체로 낫지 않을 상처이다. 아니 이것은 天刑인지도 모른다.
그냥은 견디지 못하고 피가 나도록 긁어야 하는 이 부스럼, 그러나 수반되
는 고통과 함께 맛보는 한편의 시원함 같은 것을 의미 하는지도 모른다.
좀처럼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나의 부스럼을 위해 내가 할 일이란
무엇인가. 더더욱 상처 위에 번식력 강한 문학의 열정을 놓아 배양하는 일
이다. 한혜영, <시작노트>(2-161-1)

④에 의하면 시인은 시를 지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탐험자이기도 하고 마음의 정화를 지향한다. 또한 작품은 가슴을 열어주기도 하는 것이다. 시인의 역할과 시의 효용에 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⑤는 전시중 시인의 글이나 세 번째 시선에서 개명한 이름 전이중을 사용하고 있어 동일인의 글이다. ⑤-①에서는 이민지의 생활을 선현들의 유배생활로 비유하고 있다. 삶에 있어서의 스트레스의 배설, 말하자면 세상사에 대한 비분강개함을 토로하는 것으로서의 시조창작의 의미를 찾고 있다. 이는 나아가 ⑤-②로 발전한다. 젊은 날의 꿈을 이루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도전하는 도구이면서 세상의 문제를 이겨내는 치유의 효과도 있게 되는 것이다. 시조를 쓰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⑥, ⑦에서는 창작의 즐거움을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며 문학의 기능이 창작하는 주체인 작가에게 즐거움을 주는 데에 있음을 力說하고 나아가 삶을 풍성하게 하는 행위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⑧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창작의 욕구와 고통을 토로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작가가 작품을 쓸 수밖에 없는 행위를 天刑이라 하여 의지를 넘어서는 근원적인 욕구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주시조시인들의 시조창작은 시조의 독자를 향한 표현이라기보다 작자 스스로를 향한 효용성이 더 절실하다. 시조를 창작하는 행위 자체가 시인에게 기쁨이 되고 고통이 되기도 한다. 나아가 창작행위가 자기정화적이고 자기 배설적인 의미를 지니며 이민지 생활의 고통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효용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3.2. 시조 형식에 대한 가치 인식

다음으로 시조에 대한 형식이 시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 본다. 많은 시인들이 <시작노트>에서 밝히고 있는 시조창작의 구체적인 동기가 바로 시조의 형식성이다. 다음 인용문들에서 미주시조시인들이 시조 형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 보자.

- ① 어머님 생각을 남겨두려고 글로 써 보았다. 그런데 글이 잘 안된다. 더구나 마흔다섯자 안팎의 글자를 석줄뜰에 잡아넣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어머님 생각이 부족하든가, 내 머리가 나쁜 탓일까. 박양권, <시작노트>(2-54)
- ② 미국에 온 뒤 시조가 써지지 않아 고민했다. 그러나 무언가라도 써야만이 마음이 평온했다. 때문에 시조가 써지지 않을 때는 자유시를 썼고 산문과 콩트 등 닥치는 대로 쓰면서 초조함을 달랠던 셈이다. 해도 시조에 대한 미련은 끈질겼다. 그야말로 자유로울 것 같은 자유시를 쓰고 있노라면 어느새 엄격한 정형시조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다. 한혜영, <시작노트>(2-161)
- ③ 다섯째, 시조의 음악을 저는 좋아합니다. 재래식 글자수 중심의 형태보다

는 음악에서 말하는 소절 구분과 박자, 강약과 높고 낮음 속에 우리 민족 특유의 음을 살리면서 동시에 내 자신의 숨결이 파동치게 하느라고 시조를 씁니다.

여섯째, 다섯째와 관련해서, 시조라는 정형의 규제 안에 머물면서도 그 규제의 구속을 벗어나 개성을 창출하려는, 예술 근원의 <미학적 충격>이 재미 있어서 시조를 씁니다. 고원, <나는 왜 시조를 쓰는가>(3-162)

인용문 ①에 의하면 시조의 형식은 “45자 내외의 석 줄”이라는 정형성으로 정의된다. 이 정형시에 주제를 표현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정형성의 매력은 ②에서 논의된다. 한혜영은 소설 『된장 끓이는 여자』 등을 발표하여 소설 분야에까지도 어느 정도 명성을 획득한 작가이다. 소설을 비롯하여 자신의 고백대로 다양한 갈래의 작품을 모두 창작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시조라는 갈래를 선택하고 회귀할 수밖에 없는 그 의미를 시조의 형식, 정형성에 두고 있다. 이는 최남선이 시조의 가치를 형식성에 두고 논의한 시조론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³⁾

③에서 고원은 시조의 정형성이 민족 특유의 형식이며 호흡이라고 한다. 글자수보다는 음보라고 할 수 있는 소절단위의 시조 음악성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시조가 민족 특유의 음이면서 자신의 숨결을 파동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민족 특유의 음이란 시조의 형식이 지니는 정형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조의 형식이 주는 것이 규제의 미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형성이 주는 규제와 그에서 이탈하려는 개성의 표현이라는 긴장감이 시조의 미학적 충격이라고 한다. 이런 정형성이 전제된 미학성이 시조의 매력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주 시조시인들은 대부분 시조 선택의 의미를 형식성, 운율에 의거하고 있으며 단형시조의 형식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을 기사하는 데 있어서도 고시조 삼장 형식의 3행으로 적는 기사형식을 대부분 사

33) 박미영, 위의책, 571~574쪽.

용하고 있다. 그리고 3장 6구의 정형성을 전제로 하는 기사 형식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의 인용문 ④와 같이 표기하는 것으로 초기 미주시조 시인이었던 홍언이 즐겨 사용하였다. 그러나 다음 인용문에서와 같이 현대 시조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기사형식을 통해 형식을 시험하고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

④ 넷날의 거주항구

풍경도 죠커니와



점복이 대접갓고

멸치가 명산이라



형인이 제정을붓쳐

먹고놀고 가노라

홍언, 『가주괴행』³⁴⁾

⑤ 무얼 그리

얼마나

다지고 다졌을까.

차이고 밟힌대도

모른 척

무던하고

말 많은

사람이 되레

돌돌

돌돌

34) <가주괴행 / 올드- 몬트레이에서>(『신한민보』 1949. 11. 10. 2161 4면 <사조>)

쿨러가

고원, 「돌마음」(3-7)

⑥ 연년생으로 난 세 살박이를
친구에게 잠깐 맡긴 사이

누가 그어논 금인가
지뢰밭 삼엄한 피고름 허리끈

임진강
물에 씻기는 山 그림자
冤鬼들만 놓고 갔네.

그렵고도 먼 금강산으로
사십대 아들로 손 잡고 걷는 아버지.

山과 山 바다를 잇는 이 다리는
40여 星霜 보상하는 구름다리인가.

공중을 나는 꿈인지
귀양 풀린 仙人인지.

긴 세월의
한 맺힘도

山海萬里 안개 봉우리에 묻혀

天刑은
烏鵲橋에 풀어놓고

煞풀이의 흰수건

이정강, 「그리운 금강산-작은 외할아버지의 상봉I」(1-63~4)

- ⑦ 조상들은 毒하나로 멋지게 살아 왔거늘
공기는 냄새 나서 숨쉬기 곤란하고
먹이는 독한 毒으로 오염되어 버렸어요.

영토는 무조건 개발로
자꾸 줄고
먹거리 먹으면 병이 들어
비

실

대고
몸을 추스 리면서 살아남기 어렵네요.

동물원 유리상자엔 월세 내면 들어가나
원장님 찾아가서 방 한 칸 부탁할까?
웃돈을 두

독

히

주면

없던 방도 만들겠지.

상자안은 아늑해서 살기가 괜찮은데
원장님 보신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네요.
날잡아 잡숫지마쇼, 낙동강물 마셨대요. 전이중, 「독사의 所願」(3-125)

- ⑧ 아하 예 어디냐 이승이나 저승인가

에 와서 난생 처음보는 조물주를 만났구나

글로 쓰자 붓을 드니 붓끝 굳어 바위되고

입으로 말을 하자니 세치 혀가 짧구나 박양권, 「그랜드 캐년」(3-65)

⑤에서 보면 단형시조의 3행을 각각 마치 현대시의 한 연인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기사하고 있다. 그리고 ⑥은 제목이 하나인 한 편의 시로 본다면 각 연의 다양한 기사형식 때문에 형식상으로 시조라고 보기 힘든 작품이다. 작자가 시조라고 한 의도대로 연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시조의 1행으로 본다면 세 수가 한 작품을 이룬 연시조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수는 다양하게 기사되었고 내재율로 본다면 한 행의 음절수나 음보가 늘어나 평시조라기 보다 사설시조의 형식으로 된 연시조라고 할 수 있다.

⑦에서는 이미지스트와 같이 과감한 형식을 시도하고 있다. 앞 뒤에 전형적인 3행 형식의 시조를 기사하고 중간 시행을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구불구불 배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조의 호흡과 운율이 살아있다고 한다. 그리고 ⑧에서는 양장시조의 형식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주 시조시인들이 시도하고 있는 기사형식은 고시조나 개화기 시조의 기사 형식이 아니라 현대시조로서 다양한 기사 형식을 모두 시도하며 과감하게 형식을 시험하기도 한다 하겠다.

여기에서 그들이 표명한 <시작노트>와 작품의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살펴볼 때 그들이 시조의 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시조의 기본 자수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기사 형식을 시도하던 3행 단위로 반드시 종결어가 있으며 4·4조 및 4음보의 내재율에 의거하고 있다. 즉 위의 형식논의 인용문 ④에서 고원 시인이 말한 것을 참조하여 기사형식을 살펴 보면 자수율 혹은 음보율의 정형성을 내재율의 기저로 하고 다양한 기사형식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3. 민족문학으로서의 시조

〈시작노트〉를 통해 미주 시조시인들의 시조에 대한 표방하는 가장 강렬한 의식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소위 민족문학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민자인 만큼 이들은 모국어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시조창작을 한국인임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민지에서의 다른 민족에게 내세울 수 있는 한국적인 문학의 대표갈래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들을 통해 살펴보자.

- ① 낮설고 물설은 이국 땅에 살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모국어로 표현하는 일은 저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주로 수필을 써온 제가 근래엔 시조쪽으로 정진하고 있음은 지난 날 학창 시절에 품었던 시조를 향한 풋사랑에의 미련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곳 2세들에게도 모국어와 함께 조국의 열이 담긴 민족 고유의 문학 시조를 가르쳐서 전수케 하고픈 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틈을 쪼개어 꾸준히 엮어 나가렵니다. 이초혜, <시작노트>(2-115)
- ② 미국에 온 뒤 시조가 써지지 않아 고민했다. 그러나 무언가라도 써야만이 마음이 평온했다. 때문에 시조가 써지지 않을 때는 자유시를 썼고 산문과 풍토 등 닥치는 대로 쓰면서 초조함을 달랠던 셈이다. 해도 시조에 대한 미련은 끈질겼다. 그야말로 자유로울 것 같은 자유시를 쓰고 있노라면 어 느새 엄격한 정형시조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아마 그것은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알맞은 것이 시조이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우리의 호흡이요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근간에서야 겨우 몇 편의 시조를 쓸 수 있었다. 스스로 보아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만 시조를 몇 수 지었다는 사실이 마치 객지를 헤매이다 고향에 돌아온 마음처럼 푸근하다. 거기에는 이렇게 발표할 기회까지 생기고 보니 감사의 마음까지 보탠다. 한혜영, <시작노트>(2-161~2)
- ③ 故國에 계신 元老詩人 具常先生님의 時調짓기를 권유해주심을 감사로히

받아드려 荒蕪地이고 薄土인 나의 詩田을 꾸준히 호미와 잔손질을 하며
 가꾸어 온지도 어언 十餘(餘의 오기인듯)年…… 가끔씩 紙上들을 더럽히
 기라도 하면 우쭐하여 록키 山 밑에 무궁화 나무를 뿌리 내려 보리라고 엄
 청난 誇大妄想에 빠져 보기도 하면서 가끔 밤 詩想을 건져 보고는 살며시
 손을 펴서 놓아버릴 때는 아쉽도 크지만. 최달생, <시작노트>(2-144)

- ④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영어 몇 마디를 섞어 써야 이 시대의 덕목이 되는
 세상에 우리말의 위기가 뻔한데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꽃이요 언어예술
 의 가장 탁월한 보배유산이 어떻게 살아남고 면면히 이어나가게 될지 심
 히 위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영어권의 미주대륙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혼돈의 현장을 몸으
 로 체험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사랑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그리워지
 며, 조국은 떠나보아야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고, 위기에 닥쳐야 끈끈
 한 피의 혈맥으로 더 굳건히 뭉치게 되는 법이다. 김호길, <미주대륙에 심
 은 시조의 튼튼한 뿌리>(3-165)

- ⑤ 끝으로 일곱째, 우리 민족의, 그리고 동양의 전통적 통찰과 정감이 지닌
 진수가 한국 밖에서 큰 세계를 만나 접목되고 종합 지향하는 중에 새로운
 차원을 이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조를 씁니다. 고원, <나는 왜
 시조를 쓰는가>(3-163)

①에서와 같이 이국 땅에서 시조를 창작한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한다. 두
 가지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하나는 좀더 큰 의미로서 이국 땅에 살지만 2세대
 에게 모국어어를 교육하고 우리 고유문화인 시조를 전수하게 한다는 것은 한국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영어라는 공용어가 하지 못하
 는 역할을 모국어어가 할 뿐 아니라 시조라는 고유형식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
 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이들을 2세에게 전수한다는 것 또한 이 유대감의 전
 승인 것이다. 이런 유대감의 실체는 ②에서 볼 수 있다. 시조는 한국인의 정

서에 가장 알맞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호흡을 넘어서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시조는 고향과 같은 등가물이다. 또한 여기서 시조라는 정형이라는 틀 자체가 한국인이란 무엇인가라는 기준으로 여기게끔 한다.

미주 시조시인들의 시조에 대한 인식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③에 의하면 시조는 국화인 무궁화에 비유된다. 시조를 미국에서 짓는 일은 록키 산맥 아래 무궁화를 뿌리내리는 일이다. 이런 일이 과대망상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무궁화를 가꾸는 마음으로 시조를 미국땅에 심는다는 것이다. 이는 본인의 시조창작행위가 본인의 시밭을 일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꽃피운 것을 다른이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민족문화를 미국 땅에 전파한다는 문화전파자로서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은 세계화시대를 맞이하는 민족문화의 현실을 진단하여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도 한다. ④에 의하면 시조는 “우리 문화유산의 꽃이요 언어예술의 가장 탁월한 보배유산”이다. 모국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민족문화 계승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고유의 시조를 창작하는 길이라고 한다. 또 어쭙잖게 영어를 섞어 써야만 대접을 받는 모국에서보다도 실질적으로 영어와 모국어라는 이중언어의 혼돈 속에서 모국어의 가치를 인식하고 도리어 모국어의 위기를 타개하는 해결책을 강구하며, 그 중심에 시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조국을 떠나 이민지에서 시조를 창작하는 일이 곧 조국에 대한 사랑의 표현 즉 애국이기도 하다.

⑤에서는 본국의 시조문단 혹은 전체 문학의 나아갈 바에 대하여 던지는 화두이다. 시조가 미주에서 창작되는 일은 시조라는 갈래가 본국 내에서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큰 세계,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더 정확한 평가는 두 번째 시선집 『사막의 민들레』에 대한 서벌의 해설에서 볼 수 있다.

⑥ 한국인의 해외 이주, 그 移民史에 시조 또한 移調로 가 흐르고, 그러한 조율의 악기가 되어 어울린 시인들의 마음을 우리 이제야 말로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들에 의해 한반도 리듬이 재구성되면서 시조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하나의 밑변이 되어 줄 있다는 뜻에서다. 따라서 이들의 뜻은 오늘의 우리 작단이 정신적으로 헤이해 있는 가슴에다 따끔하게 놓는 물침임을 놓쳐서도 안될 것이다. 서벌, <해설 移民地에서 뿌리내린 시조의 숨소리들>(2-163)

⑥에서와 같이 서벌의 평가에 의하면 위와 같이 미주에서 창작되는 시조는 한반도 리듬을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시조가 세계로 알려지는 데, 나아가 세계화 되는 데에 토대를 닦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실은 미주 내에서의 작은 소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시단에 영향을 주고 시단의 정체성 확립에 자극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미주시조시인들의 <시작노트>에서 논의하고 있는 시조는 고국을 향해 자기를 토로하는 것이며 고국의 반향에 귀기울이고 나아가 고국의 시단을 각성하게 하고자 하는 인식이 있다 하겠다.

미주 시조시인들의 시조에 대한 인식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아닌 곳이기도 다양한 나라의 이민자들이 모인 미국이기에 또다른 관점에서 시조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에서 다른 이민자들의 자국 문학이 뿌리내리는 것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⑦ 북미주의 시조연구가들에 의해 첫 영어권 시조집이 나왔고 첫 영문시조계간지가 나와 일반독자층에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다. 캐나다의 엘리자벳 잭케스 시인의 「Around the Tree of Light」이란 시조집이 1995년 처음 Maple Press사에서 나왔다. 「SIJO WEST」라는 계간지는 플로리다에서 금년(1996) 봄·여름호 벌써 두 권째 발(164)간됐다. 엘리자벳여사는 필자에게 보낸 편지에 “처음에는 하이쿠에 매료되었다가 우연히 김재현 교수, 김운송시인의 시조에

대한 소개의 글을 읽고 차츰 연구를 거듭 이제는 주로 시조를 짓게 됐다. 이러한 훌륭한 시의 장르와 보배같은 고시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김호길, <미주대륙에 심은 시조의 튼튼한 뿌리>(3-165)

⑧ 우리들은 미주 각처 캐나다등지에 흩어져 있지만 시조를 우리의 차세대에 전하고 미주 대륙에 우리 문화유산을 보급 계승할 시조의 전도사로서의 임무를 자각하고 있다. 우리가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정수이며 열이 배인 시조를 푸대접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의 하이꾸는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수업시간의 숙제로 나오고 그 동호인인 하이꾸소사이어티의 회원만도 수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김호길, <미주대륙에 심은 시조의 튼튼한 뿌리>(3-166)

⑦에서는 미국에서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닌 미국인, 캐나다인이 우리 시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영어로 시조를 창작하는 현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앞서 시조의 가치를 본국인 한국에서보다 더 인정하기에 오히려 국내 문단을 각성시킴을 넘어서서 미주에 있는 한국인 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조차도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교 대상은 일본의 정형시 하이꾸이다.

⑧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타국에서 열심히 활동한 결과로 하이꾸는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쳐지고 과제로 부과되기도 한다. 이로서 일본 문학의 위상이 높다는 사실을 무척 부러워하고 있다. 반면 시조의 위상을 높이지 못함을 부끄러워 한다. 그러면서 미국현지에서 한국문학 혹은 문화 전달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자각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또한 인용문 ⑧에서와, 이미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96년 이후에도 Larry Gross 교수는 영문시조전문계간지 『SIJO WEST』를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조를 미국에 알리며 인터넷상에서 그룹, 세미나를 운영하면서 시조를 영역하여 소개하고 영어로 창작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조 관련 사이트가 하이꾸의 하위 분야에 위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영어로 시조를 창작할 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국가에서도 시조를 창작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한국시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미주 시조시인들은 국내문단에서 느끼지 못한 세계문화의 각축장에서 시조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에 있는 시조시인들에 있어서 시조는 어느 다른 문학갈래보다도 민족의 고유성을 지켜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표현하는 것이며, 미주에서의 시조창작활동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조국의 시조 문단을 일깨우는 임무를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문학의 여타 갈래와 고유성이라는 가치로서 경쟁하고, 국내문단이 하지 못하는 민족문화의 계승을 자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민지에서 여러 민족, 특히 아시아 민족의 문학 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현지에서 한국문화를 전달자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민족문학론을 형성한다. 이민지에서 다른 민족의 문화활동을 체험하면서 ⑧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미국에서의 인터넷 상에서 시조에 대한 사이트는 거의 하이꾸의 하위분야에 자리하고 있음을 의식한 새로운 민족문학론으로서의 시조론의 전개를 예고한다.

4. 결론 : 디아스포라 시조론을 전망하며

본고에서는 미국 초기 이민자 흥언이 시조창작의 선구자 역할을 하며, 강용홀이 시조를 영역하여 이민지에 소개한 이래 미주에 시조가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1989년에서 1996년 사이 미국에서 발간된 시조선집 세 권에 나타난 시조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미국에서의 시조 창작이 지니는 디아스포라적인 의미를 살펴 보았다. 이 논의 결과 국내에서 현대시조에 관한 시조론에서 인식하지 못한 시조에 대한 민족문학론의 시각을 규명할 수 있었으며,

중요한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에서 시조전개사를 살펴 보았을 때 시조를 중심으로하는 문단의 형성은 비교적 빠른 편이었다. 처음에는 1985년 시조연구회라는 동호인 성격으로 출발하는 것이었지만 어느 다른 모임보다도 활약이 두드러져 흡인력을 발휘하며 성장하게 된다. 세 차례의 시조선집을 발간하고, 1999년 『해외시조』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미주시조시인들의 구심점을 마련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한국 이주민 작가들을 연합하여 세계한민족작가연합을 창립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해외시조』를 『시조월드』로 재창간하여 세계한민족작가연합의 대외창구 역할을 하게 한다. 2003년에는 세계 시조사랑협회를 조직함으로써 해외이주자 뿐만 아니라 국내 문단과의 강한 결속을 통해 시조를 세계에 알리는 각종 행사를 주도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시조는 미주시조시인들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이민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징표로 역할하게 된다. 이런 생각은 미주시조선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시조선집인 『사막의 민들레』에 시인들의 〈시작노트〉에 잘 드러난다. 이 〈시작노트〉에 나타난 시조인식은 간명하지만 해외에서의 처지가 반영된 시각으로 시조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할 기초가 된다.

미국에서 시조를 선택하는 동기에 나타난 시조에 대한 인식으로는 먼저 문학 창작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요구이다. 시조는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욕구에 의해 창작되는 것으로 외물의 자극에 의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완성된 형태로 다듬어 가는 과정을 시조의 본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창작행위는 자기표현이라는 문학본질의 실현이자 이민지에서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 정서적인 이완행위로 자기 정화적인 효용성을 지니며 나아가 이민생활의 고통을 치유하는 효용을 달성한다.

둘째, 미주의 시조시인들이 시조를 선택하는 것은 현대시나 소설보다도 시조가 지니고 있는 정형적 요소 때문이다. 시조라는 정형성이 주는 형식의 미학은 우리의 고유의 운율을 실현하고 민족의 호흡을 확인하는 것으로, 국어와 현지어간의 갈등이나 문화적 갈등보다는 한국문학의 다른 갈래 간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시조의 가치이다.

마지막으로 시조를 선택하여 창작하는 가장 큰 동인은 조국에 대한 자기정체성의 확인이며, 조국의 민족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다. 시조창작이 애국이라는 이념과 등가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된다. 현재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이민지에서도 조선족, 고려인으로서 시조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세계 도처에 흩어진 한민족에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며 내적으로 결속하면서 국내문단과 연결해주고 있는 이산문학의 구심점이 바로 시조라는 민족문학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민지 현지에서와 현지에 이민 온 다른 민족들에게 한국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는 데에 시조시인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이민자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지의 문화에 동화되는가 하면 가져간 문화도 현지 문화와 갈등과 조화의 관계를 통해 혼합가능성을 발견한다.³⁵⁾ 이 핵심에 시조를 두고 있다. 일본인들이 자국문화를 미국에 전파하고 고유 시형식인 하이쿠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신게 된 것을 의식하는 가운데 시조의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1990년 대에 와서는 미국 내에서 초기 고시조의 영역소개 혹은 한국 문단의 창작시조를 영역하여 소개하는 과정을 넘어서, 외국인들이 영어로 시조를 창작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게 되었다. 현재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35) 이에 대해 이민자 연구자인 박준규는 “재미”도 “미주”도 아닌 “코리안-아메리칸”으로 그들만의 고유 문화를 제 3의 문화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박준규, 『“미주한인”의 디아스포라적 아이덴티티』 『역사비평』1, 역사문제연구소, 2002. 316~320쪽.)

것보다는 더 활발하게 외국인들이 시조형식을 익히고 영어로 창작한 시조를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들의 활동이 인터넷 상에서 하이쿠의 하위 분야에 위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영어로 시조를 창작한 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국가에서도 시조를 창작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를 의식하는 미주 시조시인들의 시조인식은 국내를 향한 민족문학론의 전개뿐만 아니라 이민지에서 다른 민족의 정형시와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시의 세계화라는 민족문학론의 확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제 시조는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지는 영어시조에 대한 작품 연구와 영어시조를 창작하는 외국인들의 시조에 대한 인식 등이 시조연구의 새로운 분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에 시조론의 전개에 있어서 우리 문학 갈래 내에서 시와 가의 내포적, 외연적 의미로서의 시조를 가치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³⁶⁾ 이제 세계문학 속에서 다른 나라의 정형시가와의 경쟁하는 가운데 시조의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제 3의 디아스포라 시조론이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A. 자료

- SIJO Society of America 미주시조연구회, 『사막의 달』백상시선 4. 白象, 1989.
 SIJO Society of America. 『사막의 민들레』, 도서출판 나라, 1994.
 SIJO Society of America미주시조시인협회, 『사막의 별』. 가람출판사, 1996.
 미주시조시인협회·미주시조학회, 『해외시조』1, 1999.
 조규익, 『해방 전 재미 한인 이민문학』(1:연구편. 2:작품편-시가 ①. 3:작품편-시가 ②. 4:작품편-산문 ①. 5: 작품편-산문 ②. 6:작품편-산문 ③) 월인, 1999.
 오두방정의 꿈꾸는 풍경, 『주먹시 이론 4. 서양에서의 우리나라 시조(時調)』

36) 박미영의 『한국시가론과 시조관』에서 시조관의 역사적 전개를 시와 가의 관련 양상으로 고찰하였다.

cafe.chosun.com/dreamview URL : http://cafe.chosun.com/club.menu.bbs.read.screen?page_num=2&p_club_id=dreamview&p_menu_id=18&message_id=405199

『시조월드』 <http://www.sijoworld.com>

『세계한민족작가연합』 <http://www.wkoreawriter.co.kr/index.asp>

『미주한국문인협회』 http://new.mijumunhak.com/member_04.html

SIJO WEST by Larry Gross : SIJOFORUM · SIJO: A Korean lyric poetic tradition. <http://groups.yahoo.com/group/sijoforum/> 등 다수 사이트

B. 국내논저

김용직, 「문학을 통해본 재외동포들의 의식성향 고찰」, 『인문논총』 29, 서울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93.

김효중, 「재미 한인문학에 인용된 고시조 영역 고찰-강용홀의 <초당>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39, 한국비교문학회, 2006.

박미영, 「<신한민보>소재 시가의 이민문학적 성격」, 『진리논단』 7, 천안대, 2002a.

_____, 「재미작가 홍언(洪焉:1880~1951)의 시조 형식 모색과정과 선택」, 『시조학논총』 18, 한국시조학회, 2002b.

_____, 「재미작가 홍언의 몽유가사·시조에 나타난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21, 한국시조학회, 2004.

_____, 「재미작가 홍언의 미국기행시가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25, 한국시조학회, 2006a.

_____, 『한국시가론과 시조관』, 박이정, 2006b.

_____, 「미주시조선집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작가의식」, 『한국시가연구』 25, 한국시가학회, 2008.

박준규, 「'미주한인'의 디아스포라적 아이덴티티」, 『역사비평』 1, 역사문제연구소, 2002.

서종택, 「재외 한인 작가와 민족의 이중적 지위」, 『한국학연구』 10/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8.

유선모, 「미국소수민족문학의 이해-한국계편」, 신아사, 2001.

유희석, 「한국계 미국작가들의 현주소-민족문학의 현단계 과제와 관련하여」, 『창작과비평』 30/2, 2002 여름호, 2002.

윤명규, 「재미 한인의 문학활동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소논문집』 19,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2.

-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 이연숙, 「디아스포라와 국문학」 『민족문학사연구』19, 민족문학사학회, 2001.
- 임진희, 「아시아계 미국 문학에 나타난 언어의 재정의를 통한 탈식민적 정체성의 추구」 『영어영문학』45/3, 영어영문학회, 1999.
- 조규익, 「재미 한인작가들의 자아 찾기-욕망과 좌절의 끊임없는 반복-」 『현대문학의연구』29:창립 20주년 특집 : 세계 속의 한국인, 한국문학, 한국문학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1~5, 지식산업사, 2005.
- 조동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1991.
- 홍경표, 「강용홀의 『초당』과 『행복의 숲』에 인용된 한국 <고시조>-특히 영어번역과 관련하여」 『한국말글학』20, 한국말글학회, 2003.

C. 국외 논저

- Anderson. B,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윤형숙 역, 나남, 2004.
- 레이 초우,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장수현 외 역, 아산, 2005.
- Robinson. Douglas, 『번역과 제국 : 포스트식민주의 이론 해설』, 정혜옥 역, 東文選, 2002.
- 로버트 J.C. 영,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김택현 역, 박종철출판사, 2005.
- 릴라 간디,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이영욱 역, 현실문화연구, 2000.
- 에드워드 W.사이드, *Culture and Imperialism.*, 1994, 박홍규 역, 『문화와 제국주의』, 문예출판사, 2005.

〈Abstract〉

**the Diaspora Aspects of Some Comments on Sijo Reflected
in the Sijo-Anthologies of Korean-American Authors**

Park, Mi-young

This study discusses the aspects of Korean-American *Sijo* writers' consciousness of *sijo* and its significance, focusing primarily on the *Sijo*-Anthologies of Korean-American authors, "The Moon of the Desert" (1989), "The Dandelion of the Desert" (1994), and The Stars of the Desert" (1996) published by the *Sijo* Society of America. For this purpose, I thoroughly examined "Notes of Writing *Sijo*" attached to the authors' works and some other *sijos* added at the end of the paper.

They started writing *sijos* quite early. *Sijo* has been recognized as a typical traditional genre of literature, and even foreigners came to write them in English.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view on *sijo* propounded by Korean-American authors. Firstly, they follow traditional view on the theory of *sijo* in terms of its nature and utility, and at the same time they emphasize the utility of katharsis through self expressions. Secondly, their recognition of the value of *sijo* boils down to its formal patterns. Lastly, they develop the idea of national literature through their significance of writing *sijos*. They think that they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literature as well as the expression of patriotism through writing *sijos*. Therefore, they recognize themselves as spreaders of Korean culture to the local residents, and as the main stream enhancing the status of Korean culture through the competition with other nations.

keyword : sijo, Sijo-ron, diaspora, sijo-anthology, korean-American Writer

이 논문은 2008년 11월 30일(월)까지 투고 완료되어,
2009년 1월 4일(일)부터 1월 14일(수)까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2009년 1월 22일(목)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